

전통 산불 놓기

봄이 오면 히루젠 고원의 경사면이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산불이 아니며, 초원의 생물다양성과 현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산불 놓기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반자연 초원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면서 양립하는 생태계입니다. 풀을 베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등의 인간이 하는 활동은 초원이 원래 삼림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초원의 동식물에 적합한 생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육에 천연 방목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예전의 방목지가 경작을 위한 농지로 변모하면서 세계적으로 반자연 초원의 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육지 면적에서 초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로, 이는 1960 년의 3 분의 1 에 불과합니다. 초원의 보전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루젠에서는 ‘산불 놓기’라고 불리는 모닥불을 피우는 현지 관습에 의해 반자연 초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야생 환경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s*)나 앵초(*Primula sieboldii*)와 같은 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리하에, 봄이 되고 눈이 녹은 직후에 약하게 시행되는 산불 놓기 때는 산불처럼 지표 아래의 온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초원에 있는 식물의 뿌리와 종자가 멸종되지 않으며, 뿌리와 종자는 빛을 차단하는 잡초나 어린나무가 제거된 환경에서 바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검게 된 땅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므로, 토양 온도를 발아에 유리한 온도까지 상승시켜 성장 기간의 장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산불 놓기 전통은 히루젠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초원은 말이나 소의 방목지 역할을 했으며, 여기서 수확한 풀은 지붕을 이기 위한 재료나 농업용 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풀은 유키가코이(방설책=지붕을 이는 데 쓰는 풀을 엮어서 만들며, 주거 공간을 적설의 무게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루젠의 초원은 지역의 공유 자원으로 관리되었기에, 현지 사람들은 매년 봄에 모여 하나가 되어 유지 및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현재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귀중한 전통을 유지하고 파괴되기 쉬운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도 현지 자원봉사자가 모여 산불 놓기를 시행합니다. 산불 놓기는 보통 날씨를 고려하면서 3 월 말 또는 4 월 초에 시행합니다. 히루젠 문화의 중요한 일부인 이 행사에는 관광객은 봉사활동 등록후 사전 교육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